



동아일보 채널 A팀 소속 차림(13번)이 3일 강원도 태백 레이싱파크에서 열린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제네시스쿠페 챔피언십 결승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코너링하고 있다.

태백 | 변영욱 동아일보 기자 cul@donga.com

# 빛속 역전 또 역전...명품레이스 뒀다



모터스포츠 사상 최대 64대 차량 참가  
미끄러지고 부딪히고 빛속 경쟁 짜릿

제네시스쿠페전 최명길 혼전속 우승  
창단 첫 출전 채널A팀 조성민은 12위

'2011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이 3일 강원 태백 레이싱파크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동아일보 현대자동차 기자자동차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한국셀 석유 현대해상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프로클래스(제네시스 쿠페)와 아마추어클래스(아반떼, 포르테 쿵)로 나눠서 진행됐다. 국내 모터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인 64대의 차량이 참가해 스피드를 겨뤘다. 지난해 국내에서 첫 개최된 F1코리아그 랑프리와 마찬가지로 KSF역시 첫 대회를 수중전으로 치렀다. 이번 대회 역시 빛속

레이스 특유의 변수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긴박한 레이스가 펼쳐졌다. 3개 레이스 모두 마지막까지 우승자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명승부를 펼쳐 태백 레이싱파크를 찾은 1000여 명의 관중들을 때려시켰다.

### ● 빛속 대혼전 제네시스 쿠페전, 최명길 우승

3일 열린 결승전은 거센 빗줄기로 인해 3개 레이스 모두 예선전 1위와 결승전 우승자가 다르게 나온 대 혼전의 연속이었다. 특히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였던 제네시스 쿠페전은 수중전이 만들어낸 결재이었다. 25바퀴를 도는 레이스에서 3위로 출발한 황진우 선수(DM 레이싱)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경쟁자들과 거리를 벌리며 경기 중반까지 1위를 달렸다. 손쉬운 승리를 쟁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17바퀴째에 거센 비로 인해 안전을 위한 세이프티 카(Safety Car·SC)가 투입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SC가 투입되면 모든 차량은 간격을 좁히고 일렬로 대열을 유지한 채 서킷을 달리며 스타트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이 때 추

월은 금지된다. 20바퀴째 SC가 빠지자 2위 타카유키 아오키(인제오토피아 키스)와 3위 최명길(인디고 레이싱팀)이 틈을 놓치지 않고 1위의 뒤를 바짝 쫓았다. 명장면은 마지막 바퀴에서 연출됐다. 2번 코너에서 아오키 선수의 차량이 황 선수의 차량을 밀치면서 황 선수의 차량이 방벽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아오키 선수가 첫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KSF 경기운영위원회는 "황 선수의 차량을 밀친 아오키의 주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오키 선수에게 실격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한 최 선수가 32분 32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레이스에서는 강병휘 선수가 김태현 선수와 접전을 벌였으나 마지막 바퀴에서 강 선수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김 선수가 32분 55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포르테 쿵 클래스에서는 이진욱 선수가 32분 55초의 기록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한편 '채널 A 동아일보 레이싱 팀'의 조성민 선수는 예선 11위로 출발해 경기 중반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지만 레이싱

도중 타이어가 찢어지는 악재를 만나면서 12위로 팀 창단 후 첫 레이스를 끝마쳤다. ● 일반인들과 함께한 축제 이날 태백 레이싱파크에서는 1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모터스포츠의 진수를 만끽했다. 서울에서 태백까지의 거리는 다소 멀지만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짜릿한 명승부와 함께 피트워크, 택시타임 등의 부대행사를 즐기며 높은 만족도를 표실했다. KSF는 사전에 신청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레이스에 참가한 차량을 실제로 동승할 수 있는 택시 타임과 드리프트 퍼포먼스, GT 카 시범주행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경기 관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현대차 김충호 부사장은 "선수들은 물론 일반인도 함께한 모터스포츠 축제인 KSF가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전이자 1라운드를 치른 KSF는 9월, 10월, 11월에도 라운드를 개최한다. 태백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 ■ KSF 이색참가자

## 한민관·백보람 "나도 레이서" 전문레이서·동호인 동참 축제 한마당

'모터스포츠는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2011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은 전문 레이서와 동호인들이 함께한 축제의 한마당이였다.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레이싱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무대이기도 했다. 가장 눈길을 끈 참가자는 개그맨 한민관 씨(31·Loctite HK)였다. 프로 클래스인 제네시스 쿠페 레이스에 나선 한민관은 "처음엔 연예인이 카레이싱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금지 않은 시선이 있었지만 저번이 확대되면서 점차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은 차량 문제 때문에 완주하지 못했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은 스포츠다. (이) 세상이형처럼 자신의 팀을 가지는 프로 레이서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방송인 백보람 씨(31)도 생애 처음으로 레이스에 도전해 이목을 끌었다. 아마추어 클래스인 아반떼 레이스 예선에 출전한 백씨는 최하위인 26위에 머물렀지만 박수를 받았다. 경기 평택 안중고 자동차와 교사로 학생들에게 정비를 가르치고 있는 원상연 씨(27)도 화제였다. 원 씨는 "직접 자동차 경주를 경험해보아야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레이싱의 매력에 빠져 색소폰 연주자의 꿈을 접은 참가자도 있다. 대학에서 색소폰을 전공한 이승택 씨(26)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프로레이서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일이든 닦치지 않고 하고 있다"며 열정을 보였다. 한국 최연소 포뮬러 파일럿 서주원 군(17·늘푸른고)도 포뮬러 머신 시범주행을 선보였다. 그밖에 도 차과외사, 갈비집 사장 등 각양각색의 참가자들이 축제의 레이스를 펼쳤다. 태백 | 유근형 동아일보 기자 noel@donga.com

# 양용은 끌고 김경태 밀고...양·김이 해냈다

■ 'KB금융 밀리언야드컵' 한일골프대항전 10승3무7패 역전...작년 패배 설욕 양용은 3전전승...김경태는 MVP

한국이 일본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지난해 패배를 설욕했다. 한국은 3일 경남 김해시 정산컨트리클럽(면적 72·7159야드)에서 열린 한일 남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KB금융 밀리언야드컵'(총상금 20만 달러) 사흘째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6승1무3패로 승점 6.5를 추가해 일본에 11.5대8.5(10승3무7패)로 승리했다. 역대 전적에서 2승1패로 앞서 나갔다. 첫날 포섬 경기에서 2대3으로 1점 뒤졌던 한국은, 둘째 날 포볼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챙기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마지막 날 10명이 나선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최호성, 박상현, 김도훈, 김대현, 배상문, 양용은이 승리하면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한국은 1번 주자로 나선 최호성(38)이 3언더파 69타를 기록, 4오버파 76타를 친 오다 코메이에 7타 차 완승을 거둬 포문을 열었다. 소노다 슌스케와 맞붙은 박상현(28·양드레김골프)도 승점 1을 보냈다. 16번홀까지 2언더파로 팽팽했던 승부는 17번홀에서 박상현이 4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한발 앞서 나갔다. 18번홀에서도 버디를 성공시킨 박상현은 보기로 무너진 슌스케를 3타 차로 따돌렸다. 2점 차로 앞선 상황에서 김도훈(21·넥슨)도 마츠무라 미치오에 4타 차 승리를 챙겨 3점 차로 간격을 벌렸다. 일본의 반격도 거세다. 4, 5, 6번 주자로 나선 가와이 하루, 다카야마 타다히로, 이시카와 료가 이승호(25·토마토저축은행), 홍순상(30·SK텔레콤), 강경남(28·우리투자증권)에 이겨 균형을 맞췄다. 팽팽하던 승부는 김대현(23·하이트)의 승리로 다시 한국 쪽으로 기울어졌다. 2010년 KGT 투어 상금왕 출신인 김대현이 콘도 토모히로를 2타 차로 꺾었고, 이어

배상문(25·우리투자증권)이 이케다 유타에 9타 차 완승을 거두면서 다시 승점 1을 보냈다. 우승까지 0.5점만을 남겨뒀다. 한국은 남은 2경기에서 한 경기만 비겨도 우승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가 후지타 히로유키와 접전 끝에 2언더파 70타로 비겨 우승을 확정지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만형 양용은은 4언더파 68타를 쳐, 카타야마 신고(이븐파 72타)를 4타 차로 꺾어 우승을 자축했다. 2004년 이후 7년 만에 한일전에 나선 양용은은 혼자 3승을 기록하면서 한국 우승을 책임졌다. 한편 2승1무로 맹활약한 김경태는 한일 기자단이 선정한 MVP로 뽑혔다. 총 득표 27표 중 14표를 획득했다. 김해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양용은이 3일 열린 한일골프대항전 마지막 날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에 출전해 8번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뒤 기뻐하고 있다. 양용은은 이번 한일전에 혼자 3승을 책임지며 한국팀 만형의 역할을 다했다. 김해 | 주영로 기자

## 탱크, 뒷심을 부탁해

최경주 AT&T내셔널 3R 선두와 1타차 공동3위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가 미국 PGA 투어 AT&T 내셔널(총상금 600만 달러) 3라운드에서 공동 3위로 추종했다. 최경주는 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뉴타운 스퀘어의 애라리니크 골프장(파70·7237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잡아냈지만 보기 4개를 적어내 1언더파 69타를 쳤다. 전날까지 7언더파 133타 단독 선두에서 중간합계 8언더파 202타 공동 3위로 내려왔다. 선두 자리를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우승 가능성은 충분하다. 공동 선두에 오른 리키 파울러와 닉 와트니(이상 9언더파 201)와는 1타 차에 불과하다. 지난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2년 공백을 깨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최경주는 PGA 통산 8승을 기록 중이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자신의 목표 중 하나인 PGA투어 통산 10승 달성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 한편 PGA 투어 우승이 없는 위창수(39·데일리메이드)는 전날 공동 2위에서 7위로 5계단 떨어졌다. 이날 1타박에 줄이지 못하면서 중간합계 6언더파 204타가 됐다. 하지만 선두와는 3타 밖에 차이 나지 않아 마지막 날 역전을 노려볼 만하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 명불허전 명승부 한일전 사흘간 1만명 '홍행 대박'

남자골프가 한일전의 명승부를 통해 옛 영광 재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일부터 사흘간 경남 김해 정산골프장에서 진행된 한일 프로골프 국가대항전 'KB금융 밀리언야드컵'은 다른 한일전 못지않은 짜릿함과 감동을 전해줬다. 올해로 세 번째 맞는 골프 한일전에 양국의 내로라하는 톱스타들이 총출동했다. 한국에서는 아시아 남자골프 최초로 메이저 챔피언

피언에 오른 양용은과 일본 상금왕 출신인 김경태 등 10명의 태극전사가 나섰고, 일본에서는 이시카와 료, 카타야마 신고 등의 스타들이 모두 출전했다. 골프팬이라면 한번쯤 경기를 보고 싶어 할 이름난 선수들이다. 스타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게임은 박진감을 높였다. 일반적으로 골프대회는 4라운드 스트로크 플레이를 펼쳐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회는 첫날 팀당 2명의 선수가 하나의 공을 번갈아 플레이하는 포섬, 둘째 날 2명의 선수가 각자의 공으로 플레이해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포볼, 셋째 날 1대1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됐다. 전력과 전술, 치열한 신경전까지 일반 골프대회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장면이 펼쳐져 보는 재미가 컸다. 멋진 승부에 감동도 더해졌다. 이번 대회에는 20만 달러(한화 약 2억2000만원)의 총상금이 걸려있었지만 모두 일본 대지진 피해 성금으로 전담된다. 선수들은 상금 한 톨 받지 못했지만 한일전 승부에서 상금보다 더 중요한 건 자존심과 명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번 한일전에는 사흘간 총 1만 명이 넘는 갤러리가 운집했다. 대회가 지방 골프장에서 열린 단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흥행 성공이다. 재미와 감동이 만들어 낸 결과다. 김해 | 주영로 기자

한여름, 자동차가 찻통? 네비는 꼭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에르고 ERGO** 7, 8월에 자동차보험 만기라면 **지금이기회!** 이제 번호로 보험료만 알아봐도 여름용 햇빛 가리개를 주니까! 기간: 2011년 8월 31일까지 (매일 신청은 2011년 8월 26일에 한함) **1544-1666** ERGO | 에르고다음다이렉트\*